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김 정 화 김 미 경 김 진 경 고 은 영†

경희대학교 여학생과

숙명여대 성평등상담실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있어 차별적인 진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두 차원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군집별 진로장애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대학생 총 826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로 구성된 설문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별 진로장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네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는데, 군집 1은 진로결정수준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은 '행동지향집단', 군집 2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혼란집단', 군집 3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이상집단', 군집 4는 진로결정수준은 높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행동지연집단'으로 명명하고 각 군집별 진로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집단'과 '행동지향집단'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혼란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상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더 많았다. 각 군집 별 진로결정에 대한 진로장애 하위 척도의 설명력과 영향은 군집 1과 2에서는 직업정보부족과 자기명확성 부족, 군집 3과 4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진로장애 하위 척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한 집단 구분과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진로 상담을 위한 방안과 후속연구들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군집분석

*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처 여학생과에서 실시한 '경희대학교 여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분석 및 군집별 진로장애 요인 및 성차 분석'을 수정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고은영,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E-mail : key5414@gmail.com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관계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 한편, 대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특성을 자연발생적으로 보이는지를 알고자 군집분석이나 유형화를 통한 접근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생집단에서 나타내는 군집의 종류와 특성을 밝힘으로 각 집단에 보다 적합한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의 자료로 삼고 관련한 진로 정책수립에 도움을 얻고자 함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성별의 차이를 조망하거나(강희순, 2010; 우영지, 2010; 이기학, 2003; 이상길, 2008; 이현주, 2010) 학년 간 진로 프로그램에서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강희순, 2010; 김선경, 강혜영, 2011), 개인의 흥미나 성격특성의 차이에 기반하여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이승미, 김영아, 김유진, 문수중, 2008; 이주희, 2004; 이현정, 김기석, 2008).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가지는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립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두 축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김봉환(1997)의 연구 이후로 이와 관련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대학생들을 어떠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차이를 밝혀 차별적 대상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을 꾀하려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축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김봉환, 1997; 손은령, 김연중, 2010; 이연미, 2001; 이제경, 1997; 임지영, 2009; 조애리, 1999), 이처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한 유형화가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유는 대학 시기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한 탐색을 바탕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내려진 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진로 관련한 준비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 두 가지 모두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여러 대학에서 매년 보고되는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장래문제를 포함한 진로 및 직업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2010). 잡코리아와 대학생 지식포털 캠퍼스몬(www.campusmon.com)이 4년제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취업진로결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34.1% 응답자가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학년은 25.9%, 3학년 이하는 42.0%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온타임즈, 2010. 11. 9). 이처럼 대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진로결정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결정 혹은 미결정 문제는 불안(Fuqua, Newman, & Seaworth, 1988; Kimes & Troth, 1974; Kaplan & Brown, 1987; Santos, 2001), 우울(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등의 부정적 심리지표와 관련되며, 자존감(Creed, Prideaux, & Patton, 2005; Germeijs & De Boeck, 2003), 삶의 정체성(Lopez, 1989; Vondracek, Schulenberg, Skorikov, Gillespie, & Wahlheim, 1995) 등과 같은 발달상 과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 적응(탁진국, 1996; Creed et al., 2005; Lucas, 1993), 삶의 만족(Arnold, 1989; Lounsbury, Tatum, Chambers, Owens & Gibson, 1999; Uthayakumar, Schimmack, Hartung, & Rogers, 2010)이나 심리적 안녕

(Uthayakumar et al., 2010)과 같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대학 시기는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시점일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 시기 이므로 직업 결정과 관계없이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화되는 청년실업문제로 대학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많은 시간을 구직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에 투자하게 되었다.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의 학습행동이나 전공 만족(백경화, 유경호, 2011; 손은령, 김연중, 2010; 조성연, 이선순, 2006)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수준(이주희, 200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양진희, 김봉환, 2008; 김선중, 2005; 임은미, 이명숙, 2003), 진로성숙(김남홍, 2001)과 같은 진로관련 주요 변수들과 정적인 관련을 나타내 진로 탐색과 결정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로취업준비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고(김정화 외, 2007) 진로준비가 부족할 경우 직업적인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enkae & Pulkkinen, 1995)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사회에 진출하는 바로 전시기인 대학기간 동안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는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손은령 외, 2005). 또한, 공인영어인 증시험이나 자격증취득 등의 취업 준비를 위

해 졸업을 미루고자 하는 대학 4학년생이 증가하고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졸업을 연기해주는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는 학교가 증가하는 현상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헤럴드경제, 2012. 7. 17).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진로준비행동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를 통해 나타나는 군집 특성을 확인하고, 각 군집에서의 차별적 성격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진로지도 및 개입을 하려는 학교 행정가와 진로상담가들에게 유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김봉환(1997)의 이차원적 유형화 이후로 이계경(1997)은 사범대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을 사범대, 교대, 인문계열, 사회대 등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고, 조애리(1999)는 네 유형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성실성이 진로결정과 탐색행동에 많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연미(2001)는 각 유형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가 네 유형의 집단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임지영(2009)은 공대생을 대상으로 각 유형별로 셀프 리더십 전략의 사용과 자기효능감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이재창, 박미진과 김진희(2007)는 네 가지 유형의 집단에서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혔고, 손은령과 김연중(2010)은 네 가지 유형별로 학습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렇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생들이 각 유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유형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차별적 대상에 대한 차별적 접근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봉환(1997)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준거로 하여 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했을 때, 그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것을 가정하고 분류하여 각 유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후에 이루어진 연구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거나 상·하위 25% 등의 임의적 기준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특정한 지점을 지정하여 임의로 집단을 구분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가정한 네 가지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이 존재하거나 네 유형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집단이 적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이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유형화의 기준이라면, 이러한 기준으로 나눈 집단이 군집분석을 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조합했을 때 어떤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 연구자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개념을 동시에 반영하여 집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Spanierman, Poter, Beer, & Armstrong, 2006), 연구대상에서 실제 어떠한 군집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군집이 자연 발생적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군집을 나누었을 때 다른 군집에 속하는 변수들을 포

함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정 군집에서의 특징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대학생 집단이 어떠한 군집 분포를 보이는지 군집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차이를 나타냈으나 자연발생적 군집에서 그 차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성별, 학년별, 진로장애 하위유형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군집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진로결정수준

대학생 대상의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진로결정의 과정 중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즉 내담자의 진로결정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또한 진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진로결정과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가야 한다(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담자들은 일차적으로 진로결정자와 미결정자로 구분되고, 이차적으로 미결정자는 다시 진로에 대한 미결정자와 만성적인 미결정자로 구분된다(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이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 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이다(김봉환, 1997).

지금까지 진로 미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은 적응의 어려움(Creed, Prideaux, & Patton, 2005), 불안(Fuqua, Newman, & Seaworth, 1988; Kimes & Troth, 1974; Kaplan & Brown, 1987; Santos, 2001), 우울(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낮은 자존감(Creed et al., 2005; Germijs, & De Boeck, 2003), 낮은 삶의 만족도(Creed et al., 2005), 낮은 정체성 확립(Vondracek, Schulenberg, Skorikov, Gillespie, & Wahlheim, 1995), 그리고 부적응(탁진국, 1996; Creed et al., 2005; Lucas, 1993)과 관련되어 있어, 정체감 위기(Lopez, 1989)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며,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압박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 집단에서 진로결정 집단이 진로 미결정 집단에 비해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Rottinghaus, Jenkins & Jantzer, 2009), Kimes와 Troth(1974)는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불안경향성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불안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고 하였다. Fuqua, Newman과 Seaworth(1988)에 따르면 특성불안과 상태불안 중 특히 특성불안이 상태불안보다 진로미결정을 더 설명해 주며, Lopez(1989)는 특성불안이 대학생활적응, 가족 역동과 함께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영선 외, 1999에서 재인용).

진로결정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발달적 개념들과 관련이 있는데, 진로미결정은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이연미, 2001; Betz, Klein, & Taylor, 1996; Creed et al., 2005; 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진로를 미결정한 학생은 결정한 학생보다 진로장애가 높다(이연미, 2001). 진로목표의 결정은 학생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그들의 정체감 성취에도

기여하였다(Uthayakumar et al., 2010).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성향이 강하고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 성향이 낮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향자, 1992).

또한 진로결정 및 미결정은 심리적 안녕이나 삶의 만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변수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진로결정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1989; Lounsbury, Tatum, Chambers, Owens, & Gibson, 1999; Uthayakumar, Schimmack, Hartung, & Rogers, 2010). 또한 Uthayakuma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0)에 의하면 진로결정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SWB)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Cantor와 Sanderson(1999)과 Erikson(1959)이 말한 바와 같이, 진로 목표에 대한 결정은 학생들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그들의 정체감 성취에도 기여한다(Uthayakumar et al., 2010에서 재인용). Big Five model의 성격 5요인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이 높은 수준의 신경증(Kelly & Shin, 2009; Jackson, Furnham, & Lawty-Jones, 1999)과 낮은 수준의 외향성(Page, Bruch, & Haase, 2008), 그리고 낮은 수준의 의식 차원(Lounsbury, Hutchens, & Loveland, 2005; Page et al., 2008; Shafer, 2000)과 관련이 있었다. Saka와 동료들은 EPCD 모델(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을 제안하면서 진로 미결정이 비관적 관점, 불안, 자기개념 및 정체성의 세 군집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Saka & Gati, 2007; Saka, Gati, & Kelly, 2008).

이처럼 진로결정은 대학생의 진로 선택 및 발달 과정에 중요한 변수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이유로 진로

장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고하거나(김영경, 2008; 손은령, 2001; 이상희, 2005; 이연미, 2001), 두 변인 사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Luzzo, 1996; Swanson, Daniels, & Tokar, 1996).

성별에서는 손은령과 손진희(2005), Westbrook 등(1985)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가 더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한 반면, Taylor(1979)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고향자, 1992; Niece & Bradley, 1979; Osipow, Carney, & Barak, 1976). 또한, 여학생에게서만 부모의 긍정적인 관여와 진로결정 사이를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유제민, 2010). 이처럼 성차를 기준으로 한 진로결정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성차 이외의 기준으로도 진로결정 수준의 차이를 탐색해 보거나 성차와 진로결정 수준의 사이에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과 더불어 대학기간 동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진로 준비와 관련한 직접적인 행동이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진로 목표를 이루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진로 관련 준비를 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는 결정, 직업적 목표와 계획의 명확성, 그리고 자신감을 포함하는 것으로(Bardick, Bernes, Magnusson, & Witko, 2004; Hargrove, Creagh, & Burgess, 2002; Skorikov,

2007) 인지나 정서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결정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는 아동기에 시작해서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는 복합적인 발달적 과정으로(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Super, 1953), 진로준비가 부족할 경우 초기 성인기에 직업적인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서 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enkae & Pulkkinen, 1995). 취업준비 시기가 빠를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정화 외, 2007)는 실질적인 진로준비행동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는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고학년이 되어서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손은령 외, 2005), 취업준비를 위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 4학년생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봉환(1997)이 진로 분야에서 인지적 요소 뿐 아니라 행동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개발한 이래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주희, 2004)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과정임이 확인되었다(구본용, 유제민, 2010). 진로성숙도가 높고(김남홍, 2001; 이복희, 2007)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양진희, 김봉환, 2008),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고 정보

부족 등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져(백경화, 유경호, 2011;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진로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강희순, 2010), 대학생의 학습행동에 진로결정수준 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큰 관련이 있다(손은령, 김연중, 2010; 조성연, 이선순, 2006)고 밝혀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과 마찬가지로 진로 문제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습과 적응에도 의미가 있는 변수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아지며(김봉환, 1997; 안권순, 한건환, 2002; 이제경, 1997) 성별에 따라서는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강희순,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가 있는가 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박정희, 김홍석, 2009; 서유진, 2007)도 존재한다. 성차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진로결정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성차 이외의 기준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탐색해 볼 필요를 시사한다.

한편, 김은희와 김봉환(2010)의 연구에서처럼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밝힌 연구는 변수 간 단순한 연관성을 보는 연구에서 벗어나 진로준비행동이 성차 이외에 특정한 기준으로 나뉜 집단에서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고려하여 자연발생적 군집을 탐

색함으로 성차 이외의 기준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차원을 나누고, 각 군집에서 나타나는 성별, 학년별 특성과 진로장애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변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애

진로선택이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애는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 수행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환경적인 요인들을 말하는 것으로(서유진, 2007; Lent, Brown, & Hackett, 2000; Swanson & Woitke, 1997), 상실, 헛디딤, 변화, 갈등, 직업 요구 사항과 기대의 증가, 차별, 부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들로 인하여 발생한다(London, 1997). 이로 인하여 진로선택이나 목표, 포부, 동기뿐만 아니라, 역할 행동에까지 방해를 받게 된다(손은령, 손진희, 2005). Tak과 Lee(2003)는 대학생의 중요한 진로문제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것이라 보고 미래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진로장애로 보았다.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또는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진로미결정 집단일수록 진로장애 지각이 높으며(김영경, 2008; 이연미, 2001),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손은령, 2001; 이상희, 2005),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진로결정과 진로장애 사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어(Luzzo, 1996; Swanson, Daniels, & Tokar, 1996) 두 변인 간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를 촉진했다. 첫 번째 방향은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가 조절하는 것을 밝힌 연구(정민, 노안영, 2008)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 사이에 진로 정체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밝힌 연구(이동혁, 2011)들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과 특성을 세분화 하여 그 영향과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진로장애 하위 요인 중에는 진로결정과정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혼재하고 있고(박성미, 2004), 한국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가 정적상관 또는 부적인 상관으로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등 진로장애 하위 요인들을 세분화하고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진로장애를 개인 내적인 심리특성의 영향을 받는 내적인 장애와 환경 맥락적 영향을 받는 외적인 장애로 구분하여 차이를 검증한 연구에서도(유나현, 이기학, 2009; 천석준, 이기학, 2008) 진로장애의 특성을 차별화 하여 이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탐색들은 진로장애의 영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방향에서의 이해를 도모하여 차이에 기반한 실제적인 개입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진로장애가 개인이 속한 환경의 차이나 개인의 내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수행 되었다. 김수현(2007)은 기존의 진로장애 척도를 비판하면서 지역적 차이라는 맥

락적, 환경적 장애가 지방대학 학생들의 심리적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은희와 김봉환(2010)은 성역할 지향성과 역할지향성 변수들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유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애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연미(2001)는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분류한 네 집단에서 진로장애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중시하는 개념의 집단별 차이에 따른 진로문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 집단에서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않아, 각 집단별로 경험하는 진로장애의 양상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고,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진로장애 하위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의 세분화된 특성을 탐색해 가는 연구 추세와 더불어 특정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로장애의 차이를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시기에 의미를 가지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군집에서 나타나는 진로장애의 특성을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별로 파악하여 각 군집에 속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애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군집별로 성별 학년별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진로장애 하위 요인들은 군집별로 어

떠난 차이를 나타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K 대학 재학생 826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284명(34.3%), 여성 542명(65.7%)이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06세($SD = 2.07$)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들이 267명(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학년 학생들이 258명(31.2%), 3학년 167명(20.2%), 4학년 134명(16.2%)이었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상경계열 555명, 자연·의약학계열 241명, 예술계열 30명이었다. 총 12,678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897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1부를 제외한 82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er(1976)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한 경험의 미결정 정도를 측정한다. 검사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18문항과 자유반응형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첫 2문항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을 묻는 문

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한다. 다음의 16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 정도를 재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역채점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아주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고향자(1992)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 Cronbach's $\alpha = .8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1997)이 제작한 진로준비행동검사에 김형균(2002)이 2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진로준비행동검사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을 측정하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형균(2002)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의 두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 .84$, 김형균(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진로장애

진로장애는 Tak & Lee(2003)가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결정 장애검사(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이상희(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5

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직업정보 부족 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4문항, 우유부단성격 4문항, 필요성인식 부족 4문항, 외적장애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업정보부족’ 요인은 충분한 직업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정도를, ‘자기명확성부족’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우유부단성격’ 요인은 개인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하여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필요성인식부족’ 요인은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선택을 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적장애’ 요인은 부모나 주변사람의 기대에 대한 갈등 또는 사회적 요구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Tak & Lee(2003)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직업정보부족 .85, 자기명확성부족 .89, 우유부단성격 .78, 필요성인식부족 .74, 외적장애 .66이었다.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과 다변량분산분석(M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군집을 나눌

때 사용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진로장애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고,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장애하위 척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라서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군집변인으로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군집분석 방법은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으로 진로미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하위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방법을 연달아 실시함으로써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성별, 학년별로 진로장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진로장애였다. 또한, 각 군집 별로 진로결정을 진로장애가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와 진로장애의 하위 척도들 중 어느 척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1. 직업정보부족	-	.58***	.48***	.20***	.31***	-.64***	-.41***
2. 자기명확성부족		-	.51***	.20***	.20***	-.65***	-.37***
3. 우유부단한성격			-	.15***	.31***	-.55***	-.34***
4. 필요성 인식 부족				-	.16***	-.28***	-.21***
5. 외적장애					-	-.38***	-.03
6. 진로결정수준						-	-.35***
7. 진로준비행동							-
<i>M</i>	17.78	10.84	11.45	6.60	8.15	42.58	42.00
<i>SD</i>	5.93	4.53	3.70	3.09	3.17	9.59	10.14

주. $N = 825$. *** $p < .001$.

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결정 수준은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진로결정수준이나 진로준비행동 모두 진로장애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직업정보부족과 자기명확성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하위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부적 상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진로장애 하위 요인 중 외적장애는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계수가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상관계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 외적장애를 높게 지각하면 진로준비행동보다는 진로결정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4개의 군집에 배정되었고, 군집 1은 231명(전체의 28%), 군집 2는 198명(전체의 24%), 군집 3은 164명(전체의 20%), 군집 4는 233명(전체의 28%)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표 2에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군집 1은 진로결정수준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은 '행동지향적인 집단', 군집 2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혼란집단', 군집 3은 진로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이상적집단', 군집 4는 결정수준은 높지만 행동이 낮은 '행동지

표 2. 군집변수들의 평균

군집 변인	군집 1 (<i>n</i> = 231)	군집 2 (<i>n</i> = 198)	군집 3 (<i>n</i> = 164)	군집 4 (<i>n</i> = 233)
진로결정수준	41.35	38.74	59.25	52.49
진로준비행동	47.01	31.05	54.17	37.76

주. 군집 1 = 행동지향 집단, 군집 2 = 혼란 집단, 군집 3 = 이상적 집단, 군집 4 = 행동지연 집단.

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점수로 집단을 분류한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군집들이 무선적(random)이나 우연 발생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논리적 혹은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네 개의 군집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Wilks' 랏다 값을 살펴보면, 다변량분산분석 전체에 대해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Wilks' Λ = .01, $F(2, 821) = 43447.56$, $p < .001$, 부분 $\eta^2 = .99$]. 군집 1, 2, 3, 그리고 4는 진로결정수준 [$F(3, 822) = 612.02$, $p < .001$, 부분 $\eta^2 = .69$], 진로준비행동 [$F(3, 822) = 593.55$, $p < .001$, 부분 $\eta^2 = .68$]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군집별 성별 학년별 특성

각 군집에 속한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 1(행동지향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나이는 21.31($SD = 2.02$), 군집 2(혼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0.54 ($SD = 2.17$), 군집 3(이상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1.80($SD = 2.06$), 마지막으로 군집 4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0.73($SD = 1.87$)로 군집 3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1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집단에 대한 군집별 분포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남성 283명 중 군집 4에 속한 남성이 80명(28.27%), 군집 3이 78명(27.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542명 중 군집 1에 속한 여성이 164명(30.26%), 군집 4에 속한 여성이 153명(28.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상적 집단인 군집 3에 속한 여성은 85명(15.6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본 표본에서는 여성들의 진로미결정과 행동부족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군집별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군집 1에서는 2학년이 74명(32.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에서는 1학년이 85명(4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을 살펴보면 2학년이 54명(3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4에서는 1학년이 88명(3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각 학년에 따라 군집의 분포를 살펴보면 1학

표 3. 군집별 특성

	군집 1 (n = 231)	군집 2 (n = 198)	군집 3 (n = 163)	군집 4 (n = 233)
나이 <i>M(SD)</i>	21.32(2.02)	20.54(2.17)	21.80(2.06)	20.73(1.87)
남성 <i>N(%)</i>	67 (23.67)	58 (20.50)	78 (27.56)	80 (28.27)
여성	164 (30.26)	140 (25.83)	85 (15.68)	153 (28.23)
1학년	53 (22.9)	85 (42.9)	32 (19.6)	88 (37.8)
2학년	74 (32.0)	62 (31.3)	54 (33.1)	76 (32.6)
3학년	55 (23.8)	33 (16.7)	33 (20.2)	46 (19.7)
4학년	43 (18.6)	16 (8.1)	37 (22.7)	19 (8.2)
기 타	6 (2.6)	2 (1.0)	7 (4.3)	4 (1.7)

주. 군집 1 = 행동지향 집단, 군집 2 = 혼란 집단, 군집 3 = 이상적 집단, 군집 4 = 행동지연 집단.

년이 총 258명 중 88명(34.11%) 군집 4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5명(32.95%)이 군집 2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학년 중에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아직 진로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혼란집단에 속하는 학생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총 266명의 학생들 중 군집 4에 속하는 학생들이 76명(28.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1에 속하는 학생이 74명(27.82%)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학년 학생들 중에는 진로결정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행동지연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행동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행동지향적인 집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전체 167명의 학생들 중 55명(32.93%)이 군집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6명(27.55%)이 군집 4에 속해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학년 학생들의 경우 43명(37.39%)의 학생들이 군집 1에 속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명(32.17%)의 학생들의 군집 3에 속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진로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진로탐색 행동을 하고 있는 이상적인 집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군집별 진로장애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네 집단이 진로장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종속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하였다. Wilks' 람다 값을 살펴보면, 다변량 분산분석 전체에 대해서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Wilks' Λ = .01, $F(15, 808) = 7736.87$, p

표 4. 군집별 진로장애 차이 검증

변수	군집 1 (n = 231)		군집 2 (n = 198)		군집 3 (n = 163)		군집 4 (n = 233)		F(15,808)	Scheffé
	M	SD	M	SD	M	SD	M	SD		
진로장애 전체	60.31	10.75	66.46	9.58	39.13	11.62	50.58	9.83	240.96**	3<4<1<2
직업정보부족	19.49	4.70	21.99	4.29	11.94	5.12	16.63	5.06	146.13**	3<4<1<2
자기명확성부족	12.17	3.93	14.29	4.08	6.93	3.24	9.36	3.36	142.18**	3<4<1<2
우유부단성격	12.36	3.09	13.80	3.24	8.30	3.17	10.76	3.20	100.00**	3<4<1<2
필요성인식부족	6.94	3.41	7.62	3.32	5.11	1.92	6.45	2.79	22.72**	3<4, 1, 2
외적장애	9.34	3.12	8.76	3.40	6.85	2.62	7.39	2.83	29.76**	3, 4<2, 1

N = 825. ** $p < .01$.

< .001, 부분 $\eta^2 = .99$). 구체적으로 군집들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어떤 군집들 사이에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별 사후비교를 실시하였다. 각 군집별 종속변수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집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애에서는 군집 1, 2, 3, 그리고 4의 평균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혼란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진로장애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집 3(이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진로장애를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군집별로 진로장애의 하위 척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

표 5. 군집별 진로장애하위요인이 진로결정을 예언하는 정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예언변인	군집 1 (행동지향집단)		군집 2 (혼란집단)		군집 3 (이상적집단)		군집 4 (행동지연집단)	
	β	t	β	t	β	t	β	t
성별	-.13	-2.24*	.17	1.91	.08	1.43	.07	1.17
학년	-.10	-1.74	.10	1.14	.05	.86	.03	.57
직업정보부족	.15	2.27*	.20	2.18*	.18	2.74*	.22	3.75***
자기명확성 부족	.22	3.26***	.22	2.37*	.19	2.71*	.31	5.26***
우유부단한성격	.07	1.13	.09	.94	.16	2.45*	.07	1.31
필요성인식부족	-.09	-1.49	-.01	-.13	.23	3.96***	.22	4.01***
외적장애	.12	1.91	.21	2.32*	.10	1.61	.27	4.84***
$R^2 = .24 \quad F = 4.80 \quad R^2 = .33 \quad F = 16.03 \quad R^2 = .35 \quad F = 16.70 \quad R^2 = .15 \quad F = 6.31$								

*** $p < .001$. ** $p < .01$. * $p < .05$.

는 진로장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장애 하위 요인들과 진로결정 간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확인한 결과 1.07에서 1.77로 모두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성별과 학년 차에 따라 진로결정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과 학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귀 모델에 투입하여 가의 변수로 통제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진로장애의 영향력은 군집 1에서는 24%, 군집 2에서는 33%, 군집 3에서는 35%, 군집 4에서는 1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별로 진로장애 하위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지 알아 본 결과 군집 1에서는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부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2에서는 직업정보부족과 자기명확성 부족, 외적장애의 순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3에서는 외적장애를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순서는 필요성 인식부족과 자기명확성부족,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순으로 나타났다. 군집 4에서도 우유부단한 성격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순서는 자기명확성부족, 외적장애, 직업정보부족과 필요성 인식 부족 순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

로준비행동 두 차원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집별로 성별, 학년별 특징과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토대로 이들의 진로 준비 과정 및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결합했을 때 두 변인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하위 집단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두 차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4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 1은 진로결정수준 보다 진로준비행동이 더 높은 ‘행동지향집단’, 군집 2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낮은 ‘혼란집단’, 군집 3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이상집단’, 군집 4는 진로결정수준은 높지만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행동지연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는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분류한 유형분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의 중간점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어떠한 군집이 발생하는지를 군집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념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군집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로 대학에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이렇게 발생한 네 개의 군집이 성별,

학년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군집 1과 군집 2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수준과 준비행동이 모두 높았던 이상집단인 군집 3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진로결정이 어려운 집단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연구나(손은령, 손진희, 2005) 진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진로미결정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높고(김민선, 서영석, 2009; 김동준, 1997; 허자영, 1996),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진로장애를 느끼고 우유부단함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동준, 1997; Cardoso & Marques, 2008)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학년 별 군집 분포결과는 1학년에서는 진로결정수준과 관계없이 진로준비행동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다가, 2학년과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4학년에 이르면,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학생의 비율이 많아지고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김봉환, 1997; 박정희, 김홍석, 2009; 손은령, 김연중,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 이연미, 2001;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이제경, 1997; 이주희,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군집 간 진로장애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진로장애는 네 개 군집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혼란집단’이 진로장애를 가장 높게 지각했고, 다음으로 ‘행동지향집단’, ‘행동지연집단’, ‘이상집단’의 순이었다. 이연미(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네 유형 중 ‘행동지향집단’이 진로장애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혼란집단’이 진로장애를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진로장애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차이나 표본 구성의 차이, 분석방법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이연미(2001)의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서, 상 하위 25%로 구분하면서 표본의 수가 24-60명 정도로 매우 적어서 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표본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1학년의 비율이 50%에 가까워 학년의 편중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별 표본 수가 164-233명으로 증가하고 학년별 편차도 적어졌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모두 낮은 ‘혼란집단’이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행동지향집단’보다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혼란집단’과 ‘행동지향집단’이 가장 진로장애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애가 진로준비행동 보다는 진로결정 수준과 더 연관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지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된 군집유형별로 진로장애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여 각각의 군집에 대한 진로지도의 접근을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군집 별로 경험하는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의 설명량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알아보는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군집에서 진로장애 중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부족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직업정보부족의 진로장애를 가장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김은희, 김봉환, 2010; 이상희, 2005). 본 연구에서 각각의 군집별로 진로장애의 하위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군집별로 두드러진 진로장애 하위 유형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접근과 직업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과 연계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군집별로 진로장애의 특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군집별로 진로결정에 차이를 가져오는 다른 매개변수나 조절변수의 개입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에 군집 2와 4에서는 진로장애 하위 요인 중 외적장애가 진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군집 3과 4에서는 진로장애 하위 요인 중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진로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군집 2와 4는 진로준비 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군집들인데, 이들이 진로결정을 하기 어려워하는 데에는 진로결정시 개인이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인정과 같은 환경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외적장애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취업과 관련한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미진한데(권정숙, 2007), 환경

적 진로장애를 도시 학생들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김수현, 2007) 진로준비행동과 외적진로장애 간의 관련성을 짐작케 하였다. 또한, 진로장애를 내적장애와 외적장애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외적장애의 경우 진로효능감에 대해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유나현, 이기학, 2007), 내적장애와 외적장애가 대상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경로로 진로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천석준, 이기학, 2008). 이는 외적장애가 특정 대상과 경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의하면 환경적 맥락적 장애가 진로효능감을 통해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Lent, Brown, Nota & Soresi, 2003),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이동혁, 2011).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이 특히 외적장애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진로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고(김선중, 2005; 양진희, 김봉환, 2008; 임은미, 이명숙, 2003), 내적동기(박고운, 이기학, 2007), 희망(신종임, 현채송, 2008),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적지지(김옥태, 이승희, 2011; 송현심, 홍혜영, 2010;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장벽(이희정, 김금미, 2010) 등의 변수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를 진로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진로효능감을 변화시키는 개입전략을 통해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에 영향을 주는 상담적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결정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군집 3과 4의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대학생의 진로상담 실재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군집분석 결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있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기반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 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각각의 군집에서 성별, 학년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혼란집단과 행동지향집단이 많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이상 집단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진로장애와 관련된 연구에서 남녀의 성차에 따라 경험하는 진로장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손은령, 2001; 양난미, 이지연, 2007;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여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향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성 있는 진로준비행동이 되도록, 보다 전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군집별 진로장애 하위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군집에서 직업정보의 부족과 자기 명확성 부족이 진로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애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함에 있어 직업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분리되어 이해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련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직업이 존재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거나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적, 성격적, 흥미적, 가치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특성을 직업적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쉬워지고 진로 탐색 및 준비에 대한 동기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이들이 지각하는 환경적 외적장애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담 및 진로지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특성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불안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무력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 이들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외적장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경감할 수 있는 정서완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서적 접근이 진로준비행동이 저하되어 있는 집단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집단은 진로장애 중 필요성인식 하위 요인의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선배들이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여 이들이 진로결정과 준비의 필요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차별화된 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서의 군집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이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연구했던 선행연구들과 같이 네 군집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특성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군집을 유형화 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척도가 타당화 되어 있지만, 표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표준화 하여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의 적용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점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집단의 구분이 더 용이해질 것이고 입학 시부터 졸업 시 까지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에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진로결정이 대학생활 중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임에 틀림없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적 절차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김

효정, 김봉환,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면 진로결정과 관계 없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행동지향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고,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면 행동지향집단은 감소하는 대신 혼란집단이 증가하는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로결정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질적 연구나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는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군집별로 성별, 학년별, 진로장애의 차이에 주목하여 군집별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공영역별로도 군집별 차이가 밝혀진다면, 각 전공영역에서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개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83-104.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구본용, 유제민 (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권정숙 (2007). 지방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취

- 업준비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5(2), 57-78.
- 김남홍 (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 김동준 (1997). 진로미결정 문제와 심리적 변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민선, 서영석 (2009).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22.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선경, 강혜영 (2011). Holland 개인 흥미-학과 일치도와 학과 적응도와의 관계: 이공계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75-19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수현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에서 심리적 진로장애와 객관적·환경적 진로여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57-1078.
- 김영경 (2008). 대학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옥태, 이승희 (2011). 체육계열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0(3), 53-67.
- 김은희,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탐색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의 차이 연구. 직업교육연구, 29(4), 165-183.
- 김정화, 김정아, 김미경, 조나영 (2007). 경희대 여성 졸업자의 취업 실태 조사 및 취업 결정 요인 분석 연구. 미간행 연구보고서. 경희대학교 학생지원처 여학생과.
- 김형균 (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 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 구직자들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성미 (2004).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장애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124-135.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6(11), 125-144.
- 백경화, 유경호 (2011). 경호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9, 115-137.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

- 학교.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손은령, 김연중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1-20.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종임, 현채송 (2008). 부모 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회지*, 11(2), 45-59.
- 신지영, 박성실, 형정은 (2012).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1), 19-35.
- 안권순, 한건환 (2002). 청년기의 개인특성, 성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양난미, 이지연 (2007). 남녀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검증. *사회과학연구논총*, 17, 75-99.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온타임즈 (2010). “요즘 대학생과 진로결정 고민”. 2010년 11월 9일자 기사.
- 우영지 (2010).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47-559.
- 유나현, 이기학 (2009).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0(4), 2241-2255.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 이동혁 (201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진로장벽의 역할: 예측변인, 또는 조절변인. *상담학연구*, 12(1), 59-80.
- 이복희 (2007).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9-35.
- 이상길 (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승미, 김영아, 김유진, 문수중 (2008).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필요한 적응 요소에 대한 탐색: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8-349.
- 이연미 (2001).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주희 (2004).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1), 103-115.
- 이현정, 김기석 (2008). 성격적 특성이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성별 조절효과. *산학경영연구*, 21(1), 51-71.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이희정, 김금미 (2010).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임은미,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분석. *학생상담연구*, 1, 101-113.
- 임지영 (2009). 공대생들의 진로발달의 이차원적 유형화에 따른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공학교육연구*, 12(3), 13-20.
- 정 민, 노안영 (2008).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진로정체감과 자아강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13-227.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535-558.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성연, 이선순 (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9(1), 127-140.
-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혜영 (2010).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3(2), 15-30.
- 천석준, 이기학 (2007). 전공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잠재집단,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비교.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600-601.
-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 허자영 (1996). 대학생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헤럴드경제 (2012). “대학 4년생 64.3% ‘올해 졸업 미룰 것’ ...학생신분에 취업준비가 마음 편해”. 2012년 7월 17일자 기사.
- Arnold, J. (1989). Career decided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two-cohort longitudinal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2(2), 163-176.
- Bardick, A. D., Bernes, K. B., Magnusson, K. C., & Witko, K. D. (2004). Junior High Career Planning: What Students Want.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38(2), 104-117.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Cardoso, P., & Marques, J. (2008).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The importance of gender and ethnic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Vocational and Guidance*, 8(1), 49-61.
- Creed, P., Prideaux, L. A., & Patton, W.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areer decisional states in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3), 397-412.
- Fuqua, D. R., Newman, J. L., & Seaworth, T. B.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2), 154-158.
- Germeijs, V., & De Boeck, P. (2003). Career indecision: Three factors from decis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1), 11-25.
- Hair, J. H.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Grimm, L. G. and Yarnold, P. R. (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2), 185-201.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 Jackson, C. J., Furnham, A., & Lawty-Jones, M. (1999). Relationship between indecisiveness and neuroticism: The moderating effect of a tough-minded cult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4), 789-800.
- Kaplan, D. M., & Brown, D. (1987). The role of anxiety in career indecisiven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2), 148-162.
- Kelly, K. R., & Shin, Y. J. (2009). Relation of neuroticism and negative career thoughts and feelings to lack of inform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201-329.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280.
- Lent, R. W., Brown, S. D., Nota, L., & Soresi, S. (2003). Testing social cognitive interest and choice hypotheses across Holland types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1), 101-11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a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1), 76-87.
- Lounsbury, J. W., Hutchens, T., & Loveland, J. M. (2005).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dedness amo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25-39.

- Lounsbury, J. W., Tatum, H. E., Chambers, W., Owens, K. S., & Gibson, L. W. (1999). An investigation of career decidedness in relation to big five personality constructs and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Journal*, 33(4), 646-652.
- Lucas, M. S. (1993). A validation of types of career indecision at a counseling ce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40-446.
- Luzzo, D. A.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 Neice, D., & Bradley, R. W. (1979). Relationship of age, sex, and educational groups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3), 271-278.
- Nota, L., Ferrari, L., Solberg, V., Scott, H., & Soresi, S. (2007).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81-193.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Osipow, S. H., Carney, C.,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age, J., Bruch, M. A., & Haase, R. F. (2008). Role of perfectionism and Five-Factor model traits in career indec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8), 811-815.
- Roenkae, A. & Pulkkinen, L. (1995). Accumulation of Problems in Social Functioning in Young Adult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2), 381-391.
- Rottinghaus, P. J., Jenkins, N., & Jantzer, A. M.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status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71-285.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3), 340-358.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antos, P. J. (2001). Predictors of generalized indecision among Portuguese second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4), 381-396.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hafer, A. B. (2000). Mediation of the Big Five's effect on career decision making by life task dimensions and on money attitudes by material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1), 93-109.
- Skorikov, V. (2007). Continuity in adolescent career preparation and its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0(1), 8-24.
- Spanierman S. B., Poteat B. P., Beer A. M., &

- Armstrong P. I. (2006). Psycholocial costs of racism to whites: exploring patterns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34-44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2), 219-244.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 Tak, J. K.,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ylor, K. M. (1979). *The effects of a residential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the level of career decidednes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 Uthayakumar, R., Schimmack, U., Hartung, P. J., & Rogers, J. R. (2010). Career decidedness as a predictor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96-204.
- Vondracek, F. W., Schulenberg, J. E., Skorikov, V., Gillespie, L. K., & Wahlheim, C. (1995).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career indeci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8(1), 17-29.
- Westbrook, B. W., Sanford, E. E., O'Neal, P., Horne, D. F., Fleenor, J., & Garren, R. (1985). Predictive and construct validity of six experimental measure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338-355.
- 원 고 접 수 일 : 2012. 06. 21.
수정원고접수일 : 2012. 08. 23.
최종게재결정일 : 2012. 08. 27.

Cluster analysis and group differences by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Jeonghwa Kim

Mikyung Kim

Jinkyung Kim

Eun Young Koh

Kyung Hee University

Sookmyung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career barriers, and the natural grouping in terms of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in order to provide a indicator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college students.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is revealed by the result from a cluster analysis with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N = 826$) from 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Cluster 1 'Behavior oriented group' shows by the low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hig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Cluster 2 'Confused group' shows the low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low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Cluster 3 'Ideal group' shows the high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hig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Cluster 4 'Behavior delayed group' shows the high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low career behavior preparation level. Through MANOVA there are meaningful differences confirmed by the career barriers in each cluster. In grade, the ratio of 'Ideal group' and 'Behavior oriented group' a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the increment of the grade. In gender, female students indicate the higher ratio in 'Confused group' and male students demonstrate the higher ratio in 'Ideal 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capability of the explanation and the effect of the subtypes of the career decision barrier in each cluster. Cluster 1 and 2 show the 'lack of career information' and the 'lack of self-identity.' Cluster 3 and 4 show the relatively distributed effects of the subtypes of the career barriers. Based on this study, the ways of the post-research in the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barrier, cluster analysis